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10

2021. 01. 07



www.nafi.re.kr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 보 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01. 07

Vol. 10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01월 07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민보경

- I. 미래 가치관 조사의 의의
- II.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개요
- III.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과 전망
- IV. 미래세대의 가치관
- V. 세대별 가치관 비교
- VI.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 ▶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
- ▶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여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 필요
- ▶ 미래 가치관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하고 예측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현재 기성세대와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 설계
- ▶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는 미래세대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고 미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20년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 ▶ 국민 대부분은 미래는 희망적이지만 미래 나의 행복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행복 제고 전략 마련이 시급
- ▶ 국민들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지만 갈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심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미래 갈등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 미래세대는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에 있어 사회적 의무감은 약한 편으로 나타나 기성세대의 직업관과 구별되는 차이 발견
- ▶ 미래세대는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미래 전략 수립 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 필요

I . 미래 가치관 조사의 의미

●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의 가치관 추적 및 예측의 필요성 증가

- ▶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
 -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
- ▶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 현상이 병존하며 다중적(多重的) 시간대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음(임혁백, 2014)
 - 한국 사회는 197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적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렸으나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 갈등을 내포
 - 여기에 인구감소,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사회변동요인으로 인해 미래의 충격과 함께 새로운 위기 초래 우려가 높아짐
- ▶ 압축적 근대와 탈근대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한국 사회의 가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변동을 살펴보고 한국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조사 필요
 - 특히, 한국인의 미래 가치가 반영된 국가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의 주요 가치와 그 변화의 내용과 폭을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렇게 수집된 결과는 미래 가치관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체계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미래 설계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높은 활용가치 보유
- ▶ 기존 가치관 조사는 경험적 데이터의 수집이 서구적 맥락에서 수행되어 한국의 가치를 논의하는 조사들로서 한계가 있으며 미래사회 전망을 위한 미래 가치 추출에는 한계¹
 - 미래 가치관의 예측을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및 기대, 현재와 미래사회의 비교 등 미래사회에 관한 질문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미래세대인 청소년 집단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는 미래 전략 수립에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 확보 가능

¹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는 서구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한국인 고유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며,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문화체육관광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는 성인 대상으로 조사하여 미래세대의 가치관 이해 및 예측 곤란

- ▶ 미래 가치관 조사는 슈워츠(Schwartz), 잉글하트(Inglehart)의 가치 개념을 포함하는 등 기존 가치 연구의 장점을 수용하면서² 한국인 고유의 미래 가치관과 정책적 수요 예측을 목적으로 기획
- 이 연구는 미래 가치관에 대해 1) 미래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들을 예측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며 2) 현재 기성세대와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념화
 - *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연령 범위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여 이들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미래 가치관 조사는 한국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만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II.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개요

●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서베이 실시

-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20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 * 설문문항에 향후 30년 후인 2050년 미래에 대한 문항도 있기에 69세까지 한정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
 - 단,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응답자 선호에 따라 비대면 조사 방법인 유치조사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또한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을 병행**
 - ** 조사방법별 조사 수행 비율: 조사원 면접조사 69%, 유치조사 18%, 응답자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자기기입식 조사 13%
 - 조사 완료된 표본수 : 5,321명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법 (집계구-가구 무작위표집, 가구원수 전수 추출)

² 미래 가치관 조사는 슈워츠의 자아 증진(개인) 가치(자율, 쾌락, 성취)와 자아 초월(공공)가치(권력,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주의), 잉글하트의 물질주의 가치(경제안정, 경제성장)와 탈물질주의 가치(참여, 표현의 자유, 인간적인 삶) 등의 가치개념을 포함하여 설계(박성원 외, 2018).

- 조사기간: 2020.9.10. - 2020.10.31.
- 조사 실시 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표 1] 설문 내용(5개 영역, 총111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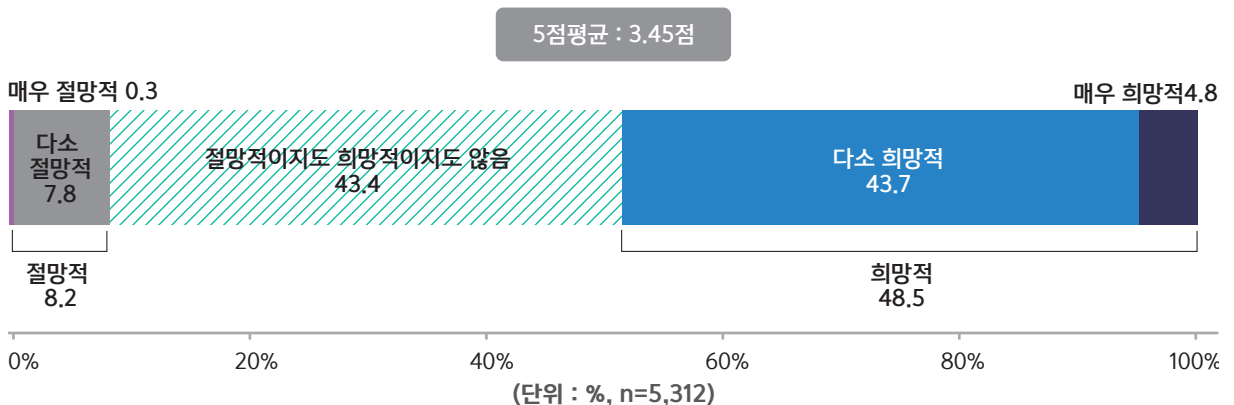
조사부문	조사항목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 미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 미래에 대한 관심도 - 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 개인적 노력과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중 나의 미래 결정 요인
개인관 가치관	• 좋은 학교에 대한 의견 • 직업 선택 시 중요한 것 •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삶에 대한 가치관 •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 • 가족 범주에 대한 인식
주관적 웰빙 및 미래전망	•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 희망하는 삶의 유형 • 삶에 대한 만족도 • 행복도 및 행복한/행복하지 않은 이유 •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30년 후의 나의 행복
사회와 가치관	• 타인에 대한 신뢰 • 집단(대상)별 신뢰 -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인공지능 • 사회 및 집단에 대한 인식 • 사회의 수용 범위에 대한 인식 • 우리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우리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환경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국가와 가치관	• 정치 참여 의식 • 민주주의의 특성에 대한 인식 • 국가의 업무 중요도 • 공익 목적시 국가의 권리 범위 인식 • 국가관 및 정치의식 • 세계시민, 통일에 대한 의식 • 남북통일에 대한 시기적 전망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 및 전망 • 30년 후 인류의 삶을 가장 위협할 것

Ⅲ.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과 전망

● 미래 이미지는 희망적이지만, 미래 나의 행복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힘들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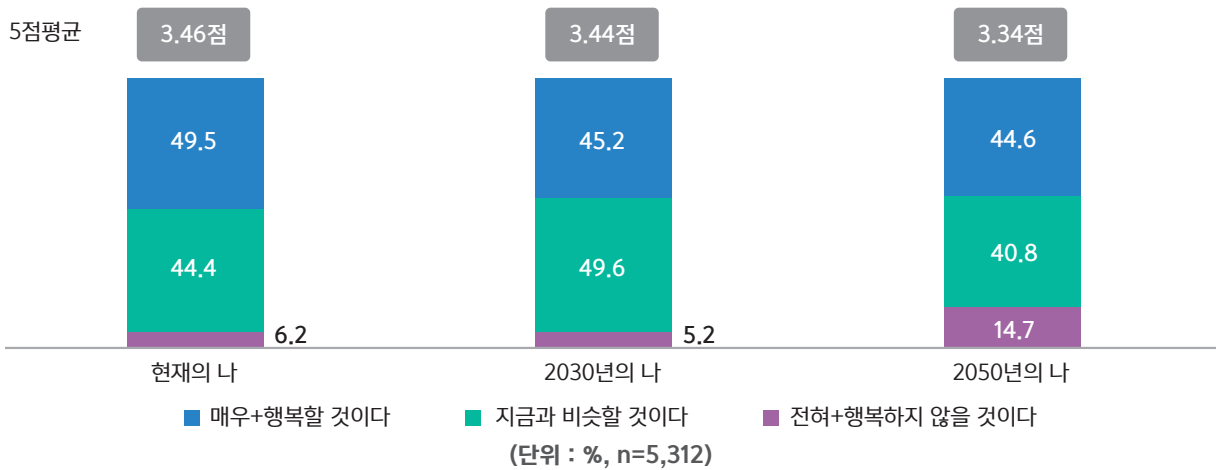
- ▶ ‘미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희망적’(매우 희망적+다소 희망적)이라는 의견이 48.5%로 나타난 반면, ‘절망적’(매우 절망적+다소 절망적)이라는 의견은 8.2%에 불과
- 10대와 20대 집단에서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평가
- 60대 이상,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희망적 평가 낮은 편

[그림 1] 미래의 이미지



- ▶ 나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1.1%,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6.2%로 높게 나타난 반면,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38.8%)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관심(47.8%)은 비교적 낮은 편
- 나에 대한 관심은 연령이 낮을수록 관심도가 높았으나(10대 4.28점, 20대 4.16점), 국가(10대 3.80점, 20대 3.81점)와 세계(10대 3.58점, 20대 3.53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나의 행복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이 45.2%로 나타남. 30년 후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년 후의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년 후의 응답에 비해 다소 줄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평균을 비교해보면, 국민들은 ‘현재의 나의 행복’이 3.46점, ‘2030년의 나의 행복’은 3.44점, ‘2050년의 나의 행복’은 3.34점으로 현재와 10년 후의 행복은 서로 비슷하게 평가한 반면, 30년 후에는 행복 수준이 현재보다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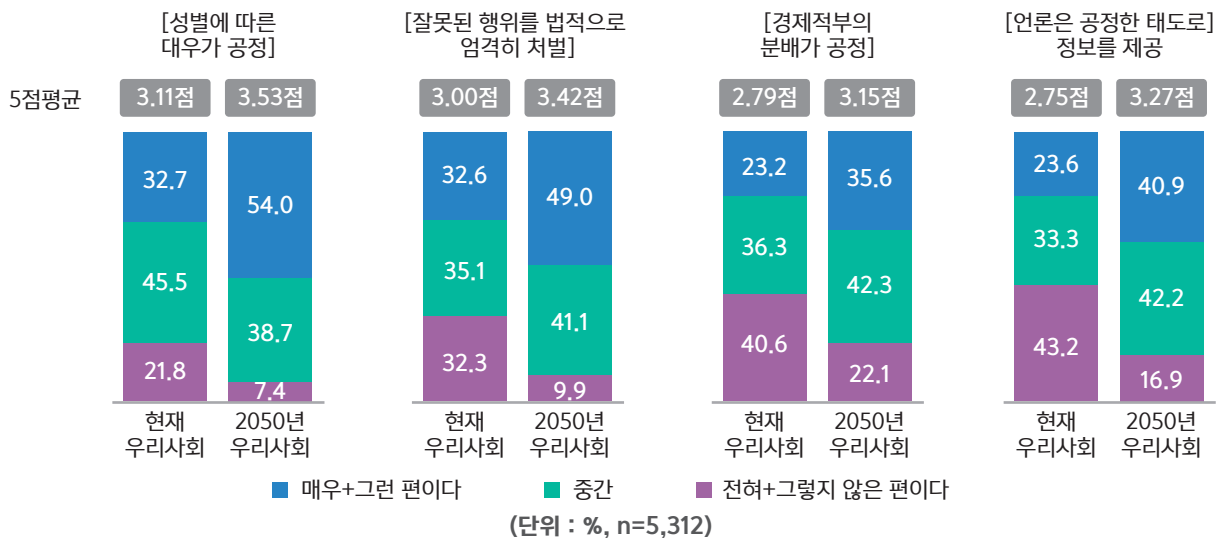
[그림 2] 미래의 나의 행복



●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지만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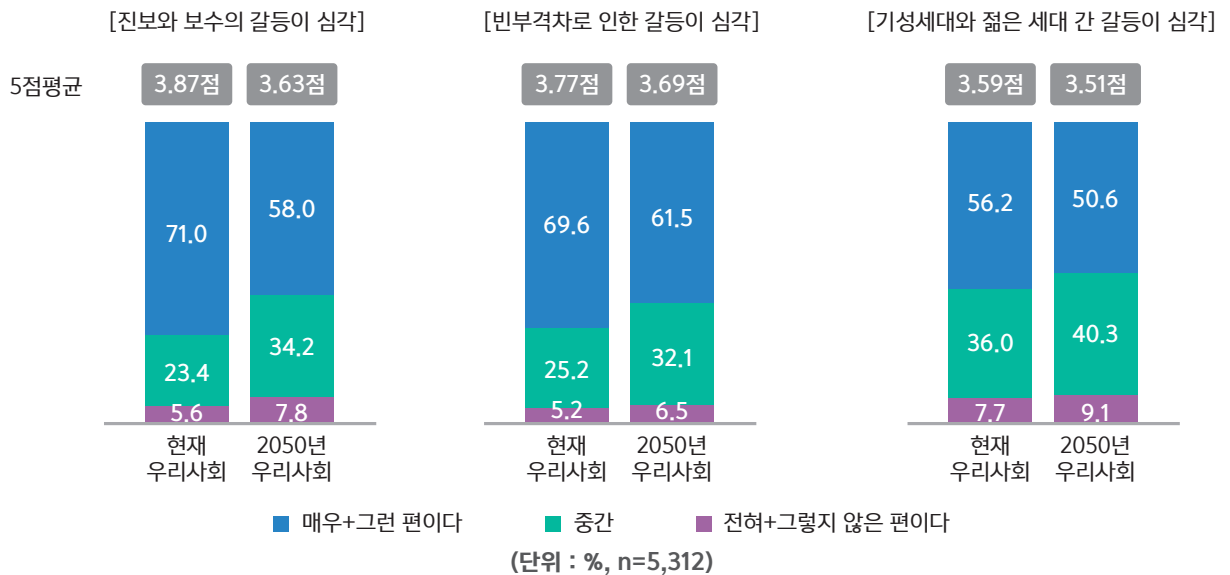
- ▶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대우’(3.11점)와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3.00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경제적 부의 분배’(2.79점)와 ‘언론의 공정성’(2.75점)에 대해서는 ‘보통’ 미만의 수준으로 평가
- 하지만 공정성에 관한 4개 조사항목 모두 30년 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가장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언론의 공정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그림 3] 공정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 ▶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약간 나아짐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이라 전망
- 갈등에 관한 3개 조사항목 중 ‘진보와 보수의 갈등’(3.87점)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후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3.63점)
- 빈부격차(3.77점)와 세대 갈등(3.59점)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후 각각 3.69점, 3.51점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 전망

[그림 4] 갈등에 대한 현재와 미래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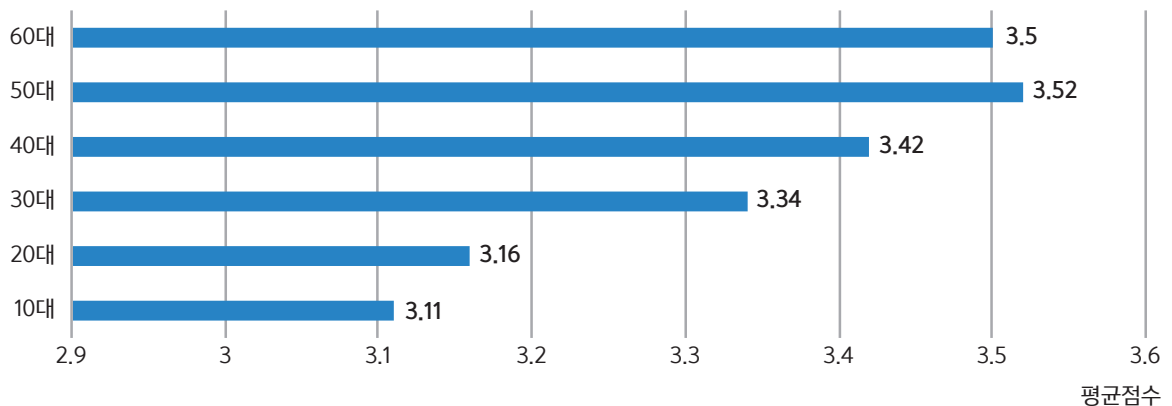


IV. 미래세대의 가치관

● 미래세대는 여가가 중요하며, 직업선택 기준으로 개인 적성이 직업 안정성보다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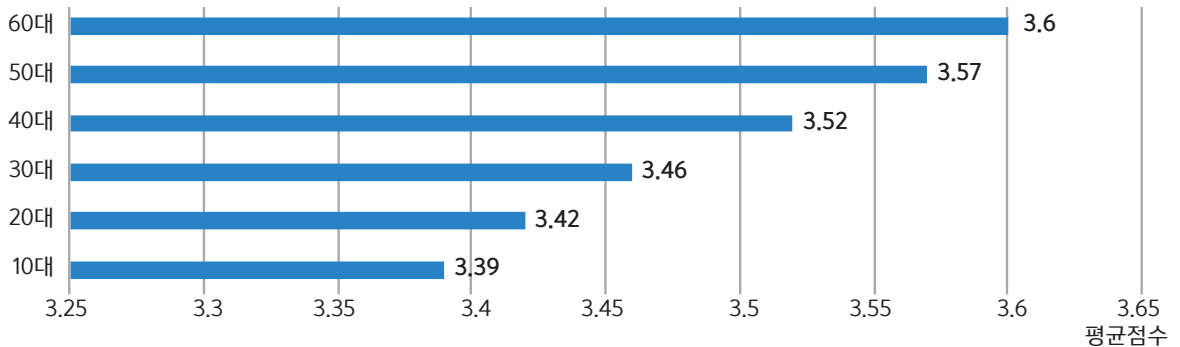
- ▶ 직업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직업의 안정성’(33.7%)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선호도의 차이 존재
 - 10대는 직업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직업의 안정성’(25.4%)보다 ‘적성’(26.4%)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19.6%)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의 안정성’과 ‘경제적 수입’을 꼽은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흥미’를 꼽은 비율이 높음
- ▶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9.6%
 -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는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5]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이 우선



- ▶ ‘일을 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0.4%
-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높은 편이며, 10대는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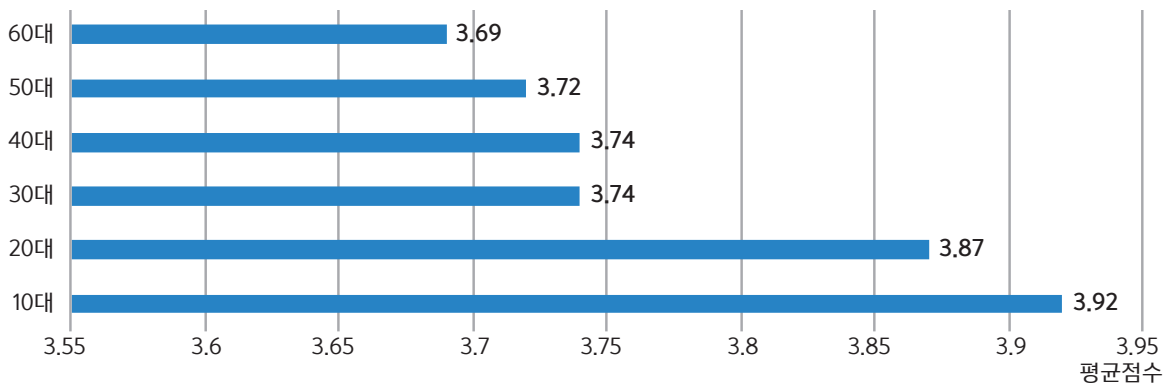
[그림 6]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



● 미래세대에게는 성공과 부유한 생활 못지않게 도전과 모험도 중요

- ▶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6.8%
-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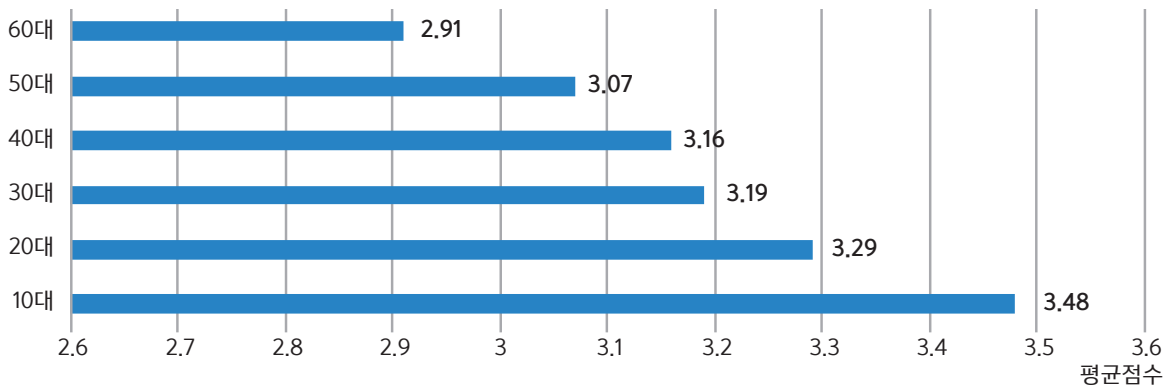
[그림 7]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



- ▶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8.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8.3%

-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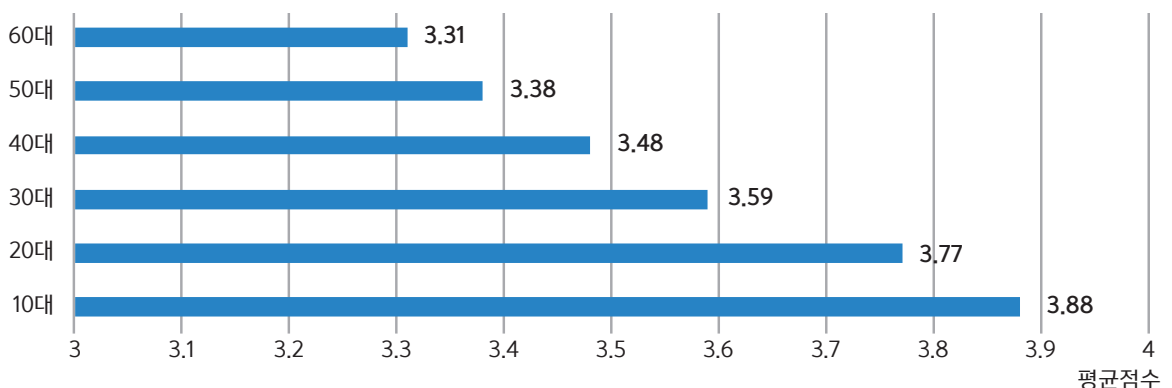
[그림 8]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



- ▶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0.4%

-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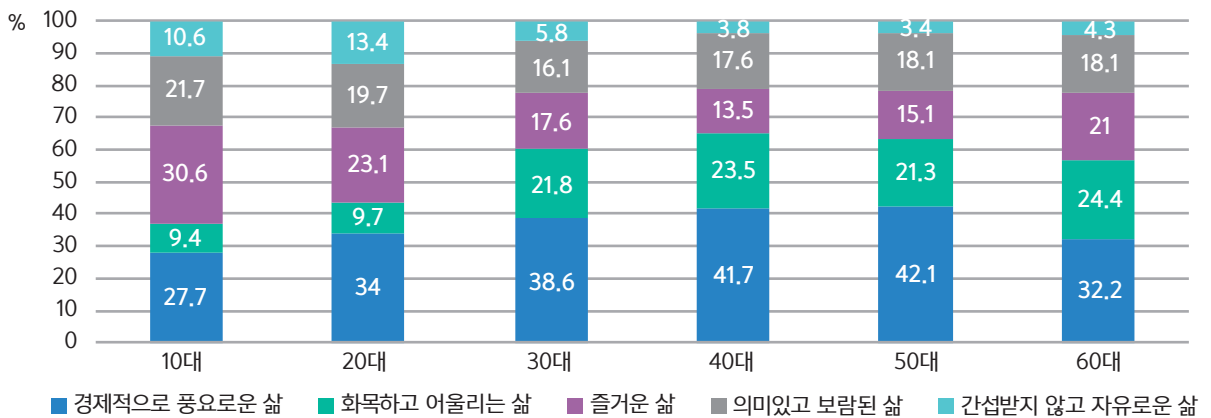
[그림 9]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은 중요



● 미래세대는 즐거운 삶 원하며,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중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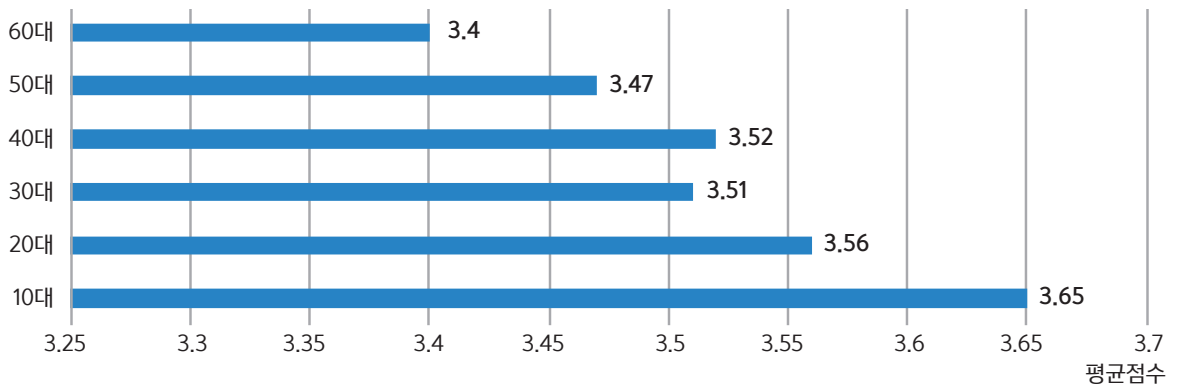
- ▶ 희망하는 삶에 대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20.0%), '즐거움 삶'(19.1%), '의미 있고 보람된 삶'(18.2%),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6.1%) 순으로 응답
- 연령별로 다른 집단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10대는 '즐거움 삶'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대는 '자유로운 삶'의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은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대와 2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0]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 ▶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9.8%
-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가장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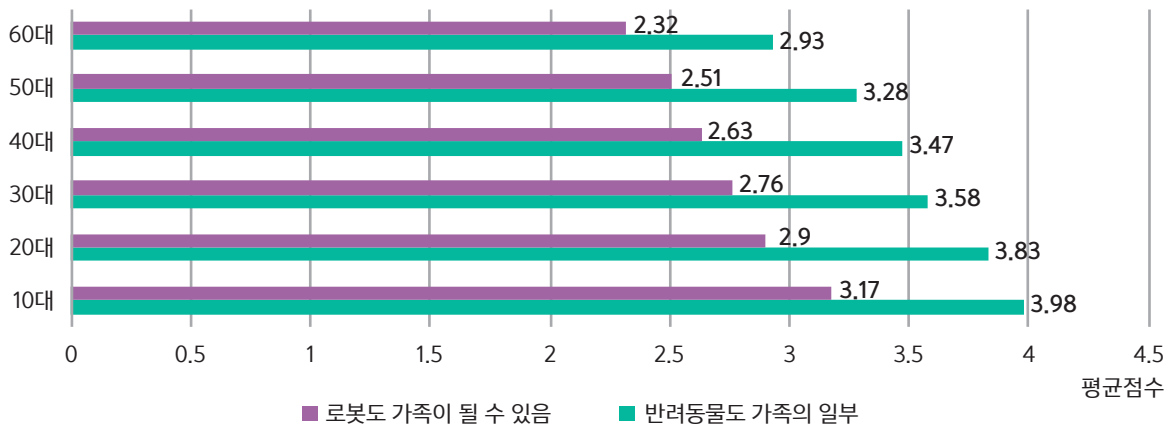
[그림 11]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것은 중요



● 미래세대는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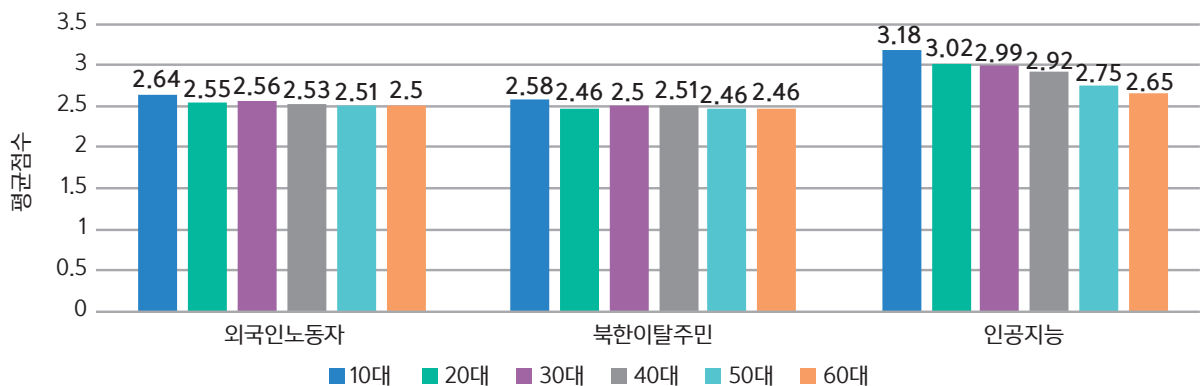
- ▶ 가족의 범주로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57.7%인 반면,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21.6%만이 동의
 -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나, 10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음

[그림 12] 가족의 범주



- ▶ 신뢰도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2.53점, '북한이탈주민'은 2.48점이었으며, '인공지능'은 이보다 약간 높은 2.86점으로 모두 보통(3점) 수준 미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3] 신뢰도



V. 세대별 가치관 비교 분석

● 50-60대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 중시, 10-20대는 자율적이고 성취감 높은 삶 추구

- ▶ 가치관의 차이에 있어 집단비교를 위해 10대와 20대(만13세-29세), 30대와 40대(만30세-49세), 50대와 60대(만50세-69세)로 구분하여 세 집단을 비교분석
 -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 개인의 삶에 있어 자율성과 성취감, 새로운 가족 범주에 대한 유연성, 과학기술의 수용성 등에서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 존재
- ▶ 50-60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직업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동의수준 높은 집단
 - 10-20대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개념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동의수준 높은 집단
 - 10-20대의 직업관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50-60대의 직업관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
- ▶ 10-20대는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동의수준은 가장 낮으나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는 것에 대한 동의수준은 가장 높은 집단
 - 개인과 집단은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칭축으로 다루어지는데 (Hofstede, 1980) 최근에는 기존의 이분법이 아닌 변형된 모습 가령,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수직주의, 수평주의 개념을 더하는 것처럼 세분화의 필요성 강조(Triandis, 1995)
 -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맥락과 이슈를 고려한 해석 필요

[표 2] 세대별 가치관 비교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일, 직업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10-20대(a) 30-40대(b) 50-60대(c)	3.66 3.70 3.80	0.902 0.906 0.878	12.819***	a,b<c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함	10-20대(a) 30-40대(b) 50-60대(c)	3.44 3.55 3.63	0.906 0.857 0.846	19.341***	a<b<c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	10-20대(a) 30-40대(b) 50-60대(c)	3.41 3.49 3.59	0.819 0.812 0.768	20.396***	a<b<c
개인의 삶	여가 생활은 내게 매우 중요	10-20대(a) 30-40대(b) 50-60대(c)	3.96 3.79 3.61	0.645 0.652 0.769	101.271***	c<b<a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받는 것 중요	10-20대(a) 30-40대(b) 50-60대(c)	3.89 3.74 3.70	0.825 0.830 0.857	20.092***	b,c<a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중요	10-20대(a) 30-40대(b) 50-60대(c)	4.02 3.85 3.81	0.723 0.774 0.739	33.687***	b,c<a
	부유하게 사는 것 중요	10-20대(a) 30-40대(b) 50-60대(c)	3.35 3.17 2.98	0.985 0.965 0.997	60.323***	c<b<a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중요	10-20대(a) 30-40대(b) 50-60대(c)	3.81 3.53 3.34	0.715 0.769 0.819	143.520***	c<b<a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은 중요	10-20대(a) 30-40대(b) 50-60대(c)	3.59 3.52 3.43	0.753 0.777 0.788	18.630***	c<b<a
가족 범주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	10-20대(a) 30-40대(b) 50-60대(c)	3.88 3.52 3.08	0.847 0.967 1.118	263.584***	c<b<a
	로봇도 가족이 될 수 있음	10-20대(a) 30-40대(b) 50-60대(c)	2.99 2.69 2.40	0.980 0.973 1.021	142.907***	c<b<a
과학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	10-20대(a) 30-40대(b) 50-60대(c)	3.08 2.95 2.69	0.881 0.824 0.837	96.530***	c<b<a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안락, 편리하게 함	10-20대(a) 30-40대(b) 50-60대(c)	3.98 3.88 3.83	0.638 0.617 0.629	22.589***	c<b<a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	10-20대(a) 30-40대(b) 50-60대(c)	3.93 3.85 3.77	0.818 0.834 0.868	15.460***	c<b<a
	로봇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	10-20대(a) 30-40대(b) 50-60대(c)	3.90 3.80 3.80	0.704 0.733 0.761	8.285***	c,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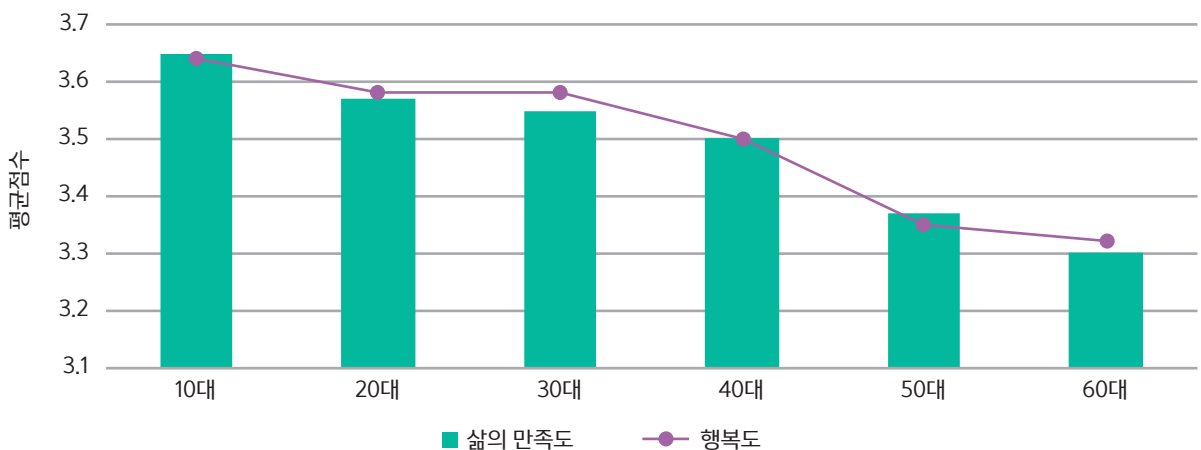
***p<.001

VI.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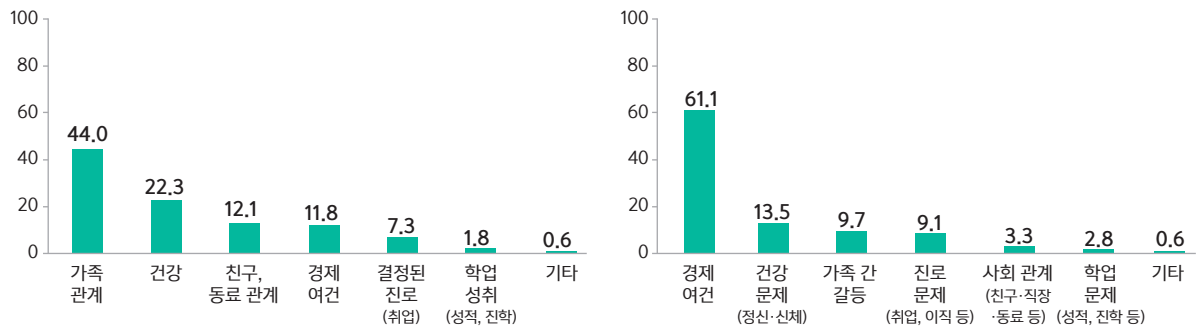
● 고령자,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미래 행복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미래 행복에 대해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
 - 해외 행복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여 40-50세 사이에 최저점을 보인 후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을 제시하고 있으나(Helliwell et al., 2015; 심수진, 2016), 우리나라는 연령에 따라 반비례하는 형태를 나타내 차이 존재(정해식 외, 2019)
- ▶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가족관계이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경제여건
 -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증가하는 경향
 - 향후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행복도 제고 전략 시급
 - 또한 미래에는 기존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행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대책방안 모색 필요

[그림 14] 세대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비교



[그림 15]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좌)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우)



● 친환경, 포용 등 미래 가치관을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

- ▶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2%가 ‘자연환경의 보존이 도시개발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환경보호와 같은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지지 확인
 - 연령에 상관없이 고른 분포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를 경제성장보다 우선시
 - 잉글하트(Inglehart, 1997)는 가난과 사회변동을 경험한 나이 든 세대는 경제적 안정 같은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반면, 풍요와 안정을 경험한 젊은 세대는 탈물질주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발전이 물질주의 가치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로 점진적 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
 - 과거 경제성장의 물질주의 가치를 중요시한 기성세대 또는 고령층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경험하면서 탈물질적 가치인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기존의 경제 우선 가치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 수립 및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 ▶ 국민들은 공정성의 경우 현재보다 미래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갈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이슈들 예를 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폐교 등 유희시설 증가,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지방소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미래 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 한국인의 구성적·유동적·복합적인 가치체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
 - 본 조사를 통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세대별, 이슈별 복잡한 가치체계 확인
 -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고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정책 필요

참고문헌

- 1) 박성원 외 (2018) 국민선호미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2) 심수진 (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pp.25-47.
- 3) 임혁백 (2014)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고려대학교 출판부
- 4) 정해식 외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Helliwell, J.F, Richard La yard, and Jeffrey Sachs, eds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5,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6)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Sage Publication
- 7)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i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8) Trandis, H.C.(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 영 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 성 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김 유 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2020.12.24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